광주매일신문 제12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제15강 '한국 경제와 안보' 이병훈 前국회의원

"경제 흐름 알아야 광주 미래 제대로 연다"

AI·녹색 대전환…광주·전남 유리
국가 지배 지나 민간기업 주도 시대
美·中 패권전쟁…반도체·방산 수혜
"남들 생각치 못한 창의력이 무기로"

광주매일신문이 주최한 제12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제15강좌가 지난 25일 광주 라마다플라자 충장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이병훈 전(前) 국회의원은 '한국경제와 안보'를 주제로 강연해 호응을 얻었다. /박상진 기자

"이제는 배운 것만 성실히 하면 성공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창의력이 무기가 됩니다."

광주매일신문이 주최한 제12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제15강좌가 지난 25일 광주 라마다플라자 충장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이병훈(68) 전 국회의원은 '한국 경제와 안보'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 전 의원은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 흐름을 알아야 광주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나온다"며 "우물 안 개구리처럼 되지 말고 흐름을 타야 한다"고 화두를 던졌다.

먼저 AX(AI Transformation)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제조업, 서비스업 등 모든 분야와 일상까지 AI가 자리했다"고 말한 후 GX(Green Transformation)와의 시너지를 강조하며 "에너지가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되고 풍력·태양광·원전 등 에너지가 풍부한 광주·전남이 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AI 시대 교육에 대해서도 "단순 암기 체계의 현재 시스템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며 "독서와 생각을 많이 하고 질문을 잘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 2026년 국가 예산 728조원과 미국 기업 엔비디아(NVIDIA)의 시가 총액이 지난 1일 기준 7천조원가량인 것을 들어 "국가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는 지나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세상이 됐다"고 역설했다.

이어 1-3차 달러 위기 등 기축통화의 변화 배경을 설명하고 "앞으로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가 떠오를 수 있으니 미리 공부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 전 의원은 미국의 관세전쟁, 부동산 버블, 내수 부진 등 중국의 위기와 세계 경제 배경을 제시하고 AI·반도체·자동차 등 한국 경제의 핵심 기술력을 내세웠다.

그는 "AI 기술에 필요한 반도체·배터리·전력·인터넷·데이터센터·제조업을 모두 갖춘 건 우리나라와 중국이 유이(唯二)한데, 중국이 미국의 견제를 받고 있어 수혜를 얻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러시아와의 외교에 대해서도 "북극항로 개발에 필요한 우리나라의 쇄빙선, 컨테이너 선박, LNG 선박이 5천㎞가량의 이동 거리를 줄여준다"며 "러-우 전쟁 지원으로 북한과 동맹을 맺고 있음에도 가장 필요한 경제 파트너가 우리나라인 이유"라고 분석했다.

안보에 대해서도 "남북 대치 상황 등 끝없는 개발·양산·수출 체계가 이뤄져 북한 견제부터 수출을 통한 경제발전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막강한 기술력과 수출력에 더해 최근 승인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으로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군사력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AESA 레이더, 현재 개발 중인 현무6, 해군의 이지스함과 잠수함 등 K-방산을 소개하며 "최첨단 기술들로 경쟁력을 갖춘 것처럼, 이제는 배운 것만 성실히 하면 성공하는 시대는 지났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창의력이 무기가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광주의 발전 방향에 대해 ▲자동차·모빌리티 ▲반도체 기업 유치 ▲방위, 헬스케어 산업 육성 ▲ACC와 K-컬쳐 허브화 ▲광주천·무등산 등 랜드마크화 등을 제시하며 "세계와 한국의 경제 흐름에 관심을 가지고 문화·경제·환경이 함께 발전하는 광주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형우 기자

광주매일TV kjdaily.com (영상뉴스)

한전MCS, 나주 소외계층 '연탄 나눔'

한전MCS㈜는 "최근 (사)좋은이웃, 나주시와 협력해 금남동 일원에서 '2025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봉사는 동절기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고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성진 한전MCS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좋은이웃 관계자 등 40여명은 직접 연탄을 나르며 구슬땀을 흘렸고, 이들이 배달한 연탄 800장은 취약계층 2가구에 전달됐다.

한전MCS는 '따뜻한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전자제품 후원과 주거 환경 개선 등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정성진 사장은 "3년째 연탄 나눔 봉사에 참여하며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종환 기자

전남 자율방재단연합회, 순천서 전진대회

전남도는 지난 25일 순천 더헤윰웨딩홀에서 시·군 지역자율방재단과 관련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선 올해 폭염과 호우에 대응해 실시한 위험지역 예찰, 피해 복구, 주민 대피 지원 등 민·관 협력으로 이뤄낸 자율방재단 활동 성과를 영상으로 돌아봤다.

참석자들은 올해 전남이 채택한 재난 대응 슬로건인 '예방은 철저히! 대응은 신속히! 복구는 다함께!'를 외치며 내년도에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자는 다짐 퍼포먼스를 했다.

전남도는 폭염과 호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주민들을 지키기 위해 2006년부터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전남 지역 자율방재단원은 22개 시·군 총 6천748명으로 주요 업무는 위험지역 예찰과 지역주민 사전대피, 피해복구, 재난 대응요령 홍보 등이다. /김재정 기자

사학연금, 대한민국 캐릭터 어워즈 '대상'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은 지난 25일 열린 '대한민국 캐릭터 어워즈'에서 대표 캐릭터를 통한 브랜드 가치 제고와 대국민 소통 성과를 인정받아 '훈격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캐릭터 어워즈는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기업이 참여하는 행사로,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캐릭터와 관련 콘텐츠를 육성하고 홍보 효과를 평가해 우수 기관을 시상하는 행사다.

사학연금은 지난해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TP Tower 개관, 미래 비전 선포 등 다양한 사업과 신규 캐릭터를 개발해 고객을 넘어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사학연금 대표 캐릭터인 연고미, 연코비, 룽이, 둥실은 공단의 서비스 가치를 친근하게 전달하고 고객 중심의 이미지를 확립하는 데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수상을 계기로 캐릭터를 활용한 신규 콘텐츠 개발과 공공기관 간 캠페인 협업 등 폭넓은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송하중 이사장은 "공단의 공식 캐릭터인 연고미, 연코비, 둥실, 룽이를 적극 활용해 국민 공감대를 확보하고, 공단의 주요 정책을 전달하는 메신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광주 북구의회, '리듬오브호프'에 의장 표창 수여

광주 북구의회는 26일 "전남대학교 봉사동아리 '리듬오브호프' 회원 6명에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리듬오브호프'는 지난 7월 혼수상태에 빠진 태국인 유학생을 돕기 위해 모금 활동을 주도했다. 최근 이영애 배우도 참여하면서 총 2천300만원의 치료비와 송환비가 마련됐다.

유학생은 이 지원을 바탕으로 지난 15일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갔으며 해당 선행은 지역사회에 큰 울림을 전했다.

주한태국대사관은 "국경을 초월한 따뜻한 연대에 감사한다"며 감사 서한을 북구의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무송 북구의장은 "학생들의 자발적 봉사와 따뜻한 실천이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며 "지역 곳곳에 이런 공동체 정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의회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동아리 대표 이보람씨는 "우리는 단지 기부자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진정한 주인공은 기부로 마음을 나눠주신 분들"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윤찬웅 기자

광주여대 치위생과 국시 실기 100% 합격

광주여자대학교는 "지난 24일 제53회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실기평가에서 모든 학생이 합격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주여대 치위생학과는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실습 중심 교육과 최신 치과장비를 활용한 실기 수업을 운영하며 매년 국가시험에서 높은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다. /박선옥 기자

영광경찰, 납치·유괴 예방 캠페인

영광경찰서는 지난 25일 영광초등학교 정문에서 등교하는 학생과 주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미성년자 납치·유괴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에는 영광경찰 여성청소년계, 영광군청, 교육지원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30여명이 참석해 손피켓과 현수막 등을 활용해 위험성과 대응 방법을 알리고 안전 물품을 배부했다.

박인신 영광경찰서장은 "아이들의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장흥경찰, 신청사 건립 성과 설명회

장흥경찰서는 26일 불전날 오후 청사 3층 회의실에서 '신축 추진위원회 성과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신청사 예정 부지로 '구 KBS 중계소 부지'를 확보하는 등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흥원 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신청사 건립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 기자

결혼

▲김종민(광주매일신문 논설실장)·이순영씨 차남 정수군, 이한섭·서정아씨 장녀 예진양=29일(토) 오전 11시 광주 드메르웨딩홀(본관) 4층 라비엔홀(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549).

▲최규룡(기아 오토랜드 광주)·김춘애씨 장남 대현(살레시오고 교사)군, 오행수·강성란씨 딸 신영양=29일(토) 오후 3시 드메르 웨딩홀 본관 4층 라비엔홀(광산구 도천동 147-29).

▲허용태·박영옥씨 아들 신의군, 박원우(호남일보 대표이사·전 광주전남기자협회장)·박동희씨 딸 화향양=29일(토) 오전 11시30분 웨딩그룹 위더스광주 3층 펠리체홀.

▲백석(백석세무사)·김민주씨 아들 윤호(회계사)군, 목영균·배은경씨 딸 진실양=29일(토) 오후 12시30분 광주 하우스오브드메르 3층 아벨린홀.

▲문영호·유신임씨 장남 창진군, 신현구((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김옥희씨 장녀 해경양=30일(일) 오후 3시 서울대 연구공원 웨딩홀(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02)878-0465, 010-3721-8259).

부음

▲윤옥순씨 별세, 김동권·동욱·은심·은진씨 모친상, 최상철(만성축산 대표)·심흥규씨 빙모상=발인 28일(금) 오후 1시 광주 북구 그린장례문화원 VIP실(1층), 062-250-4455, 010-3648-5443.